설치미술 부처서 新불교를 보다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 12월 6일부터 '즉시현금' 展



선진 스님의 작품 '자아의 해방'(사진 왼쪽)과 '궁리'. 선적인 감각을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불탑의 또 다른 이름인 스투파는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이기도 하다. 신앙으로 빚어낸 다양한 문양과 서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현대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설치미술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불교의 불탑과 사찰 전각 등은 일종의 설치미술로도 볼 수 있다.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설치미술전시회 '즉시현금'전은 이런 의미에서 불교의 현대적인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다.

'즉시현금'전을 개최하는 선진 스님은 불복장 전문가이자 설치미술가로 유명하다.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미술전을 개최해 이번 즉시현금전까지 총 12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선진 스님의 작품은 순수한 예술작품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느낌을 준다. 소품 하나 하나에 보는 이들의 친근감과 편안함을 배려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즉시현금'전에는 총 15점의 설치미술 작품이 선보인다. 만다라를 상징하는 레이저 음악판을 바라보는 불상으로 구성된 '궁리'는 동안거 기간 화두참구에 들어간 수좌 스님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랩으로 감싸고 이를 노끈으로 묶은 불상 형태로 구성된 '자아의 해방'은 육체적인 욕망과 몸에 얽메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스님은 참나와 진리가 떨어져 있거나 얻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지금 여기에서 대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진정한 자아와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는 참마음이며, 바로 지금에 현존할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1959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81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에게 사미계를, 1986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에게 비구니계를 받았다. 현재 대구 보현암 주지로 대구미술발전위원과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또 인터넷 카페모임 '하루헌'을 조직해 7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생명과 평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진 스님은 "불교 사상을 담은 미술작품으로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발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전시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견작가 초대전 '고요해야 얻어지는' 展

12월 12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중견 작가들이 신진 작가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초대전이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2월 12일까지 강석문, 김일용, 박종갑, 왕지원, 제이미 리, 한승구, 황선태 등 중견 작가들이 참여하는 '고요해야 얻어지는' 전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 간 진행된 불일미술관 신진작가 공모전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용 '날숨 들숨', 박종갑 '스미다', 한승구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등 불교 사유를 작품화한 회화와 조각, 디지털 프린트와 설치작품 등 폭넓은 미술품들이 전시된다.

불일미술관 학예실장 여서 스님은 "조각으로, 움직이는 불상으로, 혹은 설치미술로 공간을 그림으로써 고요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며 "아름답고도 간결하며 단순한, 그러나 내면에 꽉 찬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합창제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 大賞

조계종, 11월 27일 '2017 불교합창페스티벌' 개최



불교를 대표하는 합창제인 불교합창페스테벌의 올해 대상에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1월 27일 더케이아트홀에서 '2017 불교합창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치열한 전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사찰 합창팀들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이날 대상인 그랑프리는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에게 돌아갔으며, 입상은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 강원 연합합창단 · 서울 관문사 금강합창단 · 경남 양산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 · 서울 상도선원 간다르바합창단 · 계룡 호국사 학림사 여시아문 룸비니합창단 · 서울 금강선원 가가합창단이 수상했다. 그랑프리 수상팀은 300만 원, 입상팀은 150만 원의 상금 · 상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제4회 신작찬불가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 창작 찬불가를 선보인 불교음악인 8인을 시상했다.

신성민 기자

부산국제아트페어, 12월 7일 벡스코 개막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아트페어(BIAF2017)가 12월 7일 부산 센텀시티역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막한다.

부산국제아트페어는 국내외 유명작가 376명이 출품한 3000여 점의 작품이 차려지는 국내 최대 미술장터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국제아트페어에서는 아시아미술원(AAA) 정회원 40개 부스, 신진작가 초대 20개 부스, 일반작가 81개 부스, 해외 특별부스 일본 등 6개 부스, 인도 옥션 · 갤러리, 1888년 설립해 127년 인도미술의 역사를 이어온 봄베이 미술협회(bombay art society) 8개 부스가 마련됐다.

특히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고찰의 전통문양을 재현한 불교문화재 탁본작품이 특별전으로 선보인다.

신진 초대작가는 성유진, 김건일, 김태연 등 20명과 일반부스 참여 작가로 정일진과 이담 등 108명으로 모두 171명이 참여한다.

인도 특별부스에서는 알폰소 아를도스, 름 빨라니압판, 더글라스, 스미타 등 내노라하는 인도미술의 거장이 직접 내한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이외 인도 인기작가 198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정림사지박물관 특별전 '사비의 향기' 눈길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 정림사지박물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사비의 향기' 기증 · 기탁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여지역 주민들로부터 기증 받고 기탁 받은 유물들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60여점을 선별하여 정림사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소장유물로 부여의 역사는 물론 영정으로 보는 부여의 인물, 부여 민칠식가(家)와 정언욱가(家)의 고문서를 통해 부여의 명가(名家)를 살펴보는 유물과 교육의 장(場)이었던 부산서원과 칠산서원의 고문서와 목판각, 우리 내 마음속의 신앙을 보여주는 부여 천진전 단군화상과 은산 금공리 산신도 까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부여의 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노덕현 기자

'실버 예술魂' 담아낸 작품세계 펼쳐져

탑골미술관, 내년 1월 19일까지 대동제 전시회 열려



탑골미술관에 전시된 어르신들의 서예작품. 어르신들의 열정이 돋보인다.

복지관 문화예술동아리서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작품세계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은 11월 29일 관내에서 '2017 탑골대동제 전시회'를 개막하고, 수채화 · 사군자 · 유화 · 한글서예 등 각 동아리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내년 1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시회는 총 4분야로 나뉜다. 1전시(~12/6)는 서예동아리(서우회 · 선묵회 · 안묵회 · 한글서예)의 서예전, 2전시(12/8~15)는 탑골문화예술학교 유화반 · 아크릴반 · 서양화동아리 · 수채화반 등의 서양화전, 3전시(12/28~1/6)는 한문행서 · 한문해서 등 서예전, 4전시(1/9~19)는 사군자 · 한국화 등 동양화전이다. 전시회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55개 수업반과 탑골문화예술학교 소속 작품, 31개 동아리 작품 등이 전시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공연과 전시 수준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일궈내기 위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열정을 이끌어냈는지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건강은 물론 주변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탑골대동제가 어르신들의 좋은 동기이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 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